

48
58

朝鮮の洪水 (조선키홍수)

1925년경

이해인 응축본(正縮本) 대홍수기 관한 기록
 이다 1926년 3월에 조선총독부에서 출
 간 했는데 본문 158 쪽의 107개의 달하는
 도면과 49가지의 각종 도표 및 많은
 사진으로 구성 되어 있다
 응축본 장마는 아마 20세기 최대의

No.

홍수 기록이 된 해는 과연이 아니던
 60~70년대 까지만 해는 나이 많으신
 분들은 홍수 하면 <을축년 장마>를 입
 버릇처럼 얘기 하곤 했어
 을축년 대 홍수는 이해 7월 11일 부터
 9월 7일 까지 비구름이 저후 4회에
 걸쳐 남북동 모른 내렸어
 제 1회는 7월 11일과 12일과 남동강
 유역에 큰비를 쏟아 내었어 2주번째
 는 7월 17일과 18일 이틀간엔 한강유역

큰 비를 내^려 내^려 대홍수를 이루었다 세번
 때는 8월 12일과 13일에는 북쪽의 청천
 강(淸川江)과 대령강(大寧江) 및 성천강
 (成川江) 유역의 큰 홍수를 야기시켰다
 다시 네번 때는 9월 7일과 다시 남동
 강(洛東江)과 심진강(馨津江) 및 영산
 강(靈山江) 유역을 범람시켰다
 그 다음 54일간 비구름이 남북을 오르
 내리면서 전국을 홍수 두꺼비 큰 물이
 범람시켰다 이 당시의 한강 인도교

수리는 7월 17일 최고 12.26cm 폭기를 기록한
 이 당시 인명 피해는 사망 647명이었
 고 부상자 등을 합하면 인명 피해는 200
 만 명을 초과 했다고 한다

하천 범람 피해를 보면 한강수계(漢江水系)
 가 1위이고 2위인 낙동강이

도(道) 별로는 경기도가 제일 큰 피해
 를 입었고 다음이 경상남도 순이다
 피해액은 10300만엔 이었다

이 때까지 한강에는 제 1호인 제방도

있었기 때문에 감동기 용산역 앞의
철도관사 등을 훼손하고 서울역 광장까지
앞전 진출 했었지

당시 남대문까지 물이 들리 오지 않은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신도들의
해피를 칭송 하기도 했지 한지

홍수 수위는 1972년 8월 19일 16.24m
는 있었지 1990년 9월 11일 11.27m도
기록 되어 있으며 1925년 (음력년)의
수위에는 미치지 못 하였지

19
 20세기에 들어서 1865년과 1879년에
 큰 홍수가 잇따른 했으나 1925년
 즉 을축년(乙丑年) 대 홍수에는 대처지
 못 하였음

홍수에 대한 공적으로 <가지야야(梶山淺草部)
 공적>이 잇따른 것은 기술(既述) 했지만
 당시 홍수벽 축적이 잇따라 가지야야는
 공적을 집합하는데 있어 이 을축년
 대 홍수가 큰 ~~노후~~ 되었음을 ~~반~~

~~적~~ ~~이~~ ~~있~~ ~~다~~ ~~기~~ ~~름~~ ~~이~~ ~~있~~ ~~다~~